〈인문사회계열〉

2019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출제배경 및 해설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1]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주어진 글을 읽고 새로운 글을 쓰는 능력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 수필과 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등 장르와 시대를 떠나 소통하는 내용을 읽어내 표현할 수 있는지 살피도록 출제하였다. 특히 시를 이해하는 데 고정된 지식에서 벗어나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시문 (가)는 허균의 고전수필 「통곡헌기(慟哭軒記)」이다.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사연을 통해 비판적인 시대인식과 성찰을 담는다. 제시문 (나)는 박지원의 고전수필 「호곡장(好哭場)-통곡할 만한 자리」이다. 청나라를 여행하며 요동벌에서 느꼈던 새로운 삶의 의지를 격정적인 울음 속에 담는다. 이 두 제시문은 모두 울음에 대해 참신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이다. 고단한 삶을 사는 민중의 처지를 공감하고 연대하는 비판적 현실인식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제시문 (가)가 해석한 울음의 의미와 연결된다. 제시문 (라)는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다.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담은 작품으로 제시문 (나)가 해석한 울음의 의미와 연결된다.

2. 예시 답안

(가)는 이 시대를 목격하면서 품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하게 되었음을 적고 있다. 그 울음은 이별에 상심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을 때 흉내 내는 칠정(七情)의 슬픔이 아니다. 말세의 시대, 그릇된 국사, 야박한 선비들의 행실 때문에 고생을 겪는 어진 선비들의 눈물이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의 툭 트인 경계를 보고 통곡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울음은 슬플 때만 우는 칠정(七情)이 아니라 천지간의 우레와 같은 것이다.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울음처럼 막힌 곳에서 트인 곳으로 나올 때의 참된 소리이다. 자기 마음을 크게 한번 펼치고자 다짐하는 눈물이다. (다)에 담긴 지금의 눈물은 (가)와 연결지을 때, 시대를 목격하면서 품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뼈아픈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하려는 비판적인 현실 인식을 담고 있다. (라)의 눈물은 (나)와 연결지을 때, 자기 마음을 크게 한번 펼치지 못한 한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갓난아기가 트인 곳으로 나오기 전, 캄캄한 상태와 같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거쳐 굳고 정한 갈매나무와 같은 새로운 자기와 만나고자 한다. (다)의 눈물은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라)의 눈물은 자아에 대한 반성적 자세를 함축한다.

3. 출제 근거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Ⅰ』, 지학사, 2017, 251~252쪽.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동아출판, 2014, 146~147쪽.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2014, 52~53쪽.
문영진 외,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 2014, 220~221쪽.

[문제2]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대중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과 이를 통한 개인 및 집단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대중 문화와 미디어 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고등학교 문화와 윤리 교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다. 2번 문항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시문 (가)는 대중 매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탄환 이론, (나)는 대중 미디어가 양산해내는 상품화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문화, (다)는 현대적 의미의 팬덤 현상이 갖는 긍정적 기능, (라)는 대안적 민주주의와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의 가능성을 다룬 글이다. 각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하되, 문제에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시 답안

초기 매체 이론인 탄환 이론에 따르면 대중 매체의 정치적 선전이나 폭력적 드라마의 부정적 영향은 즉각적이고 강력하다. 또한 대중 매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자본주의 사회 내 소비 문화를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명품 구두와 옷을 물신화하거나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뉴욕의 독신녀들을 다룬 인기 드라마는 대중들에게 이들이 구매한 상품과 라이프스타일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게끔 부추긴다. 이와 같이 대중 매체의 무비판적 수용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대중 매체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 대중 스타에 대한 팬덤은 스타 이미지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중독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중 스타에 대한 팬덤이 자신을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에 더불어 이메일, 원격 회의, 채팅과 온라인 게시판 등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동시에 정치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에게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중 매체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3. 출제 근거

박선웅 외, 『사회, 문화』, 금성출판사, 2013, 57쪽.
박선웅 외, 『사회, 문화』, 금성출판사, 2013, 115쪽.
박선웅 외, 『사회, 문화』, 금성출판사, 2013, 206~207쪽.
박선웅 외, 『사회, 문화』, 금성출판사, 2013, 253쪽.

남궁달화 외, 『생활과 윤리』, 교학사, 2013, 156~157쪽.

[문제3]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 현상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균형 가격과 수량 결정 구조를 배운 뒤 함께 배우는 내용으로, 현실 경제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는 시장 실패의 정의 및 발생 이유,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나)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담배와 양봉업자의 사례를 들어 음과 양의 외부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적 원리 중 하나인 재산권에 대해서, (라)는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바탕하여 법과 규범에 따른 사회계약 및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가)와 (나)로부터 음의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와 (라)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보기>에 제시된 대표적인 음의 불경제 효과인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주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시 답안

환경 오염은 음의 외부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여러 사례 중 대표적인 문제이다. 기업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강이나 공기를 오염시켜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이 기업이 생산량을 줄여 환경 오염 물질을 더 적게 배출할 것을 원하지만, 기업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생산 활동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해결 방안은 재산권을 활용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온실 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기여가 높을수록 높은 비용을 부과하게 만들 수 있다. 환경 오염 문제에 관한 다른 해결 방안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로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제력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상품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통해 생산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 오염 관련 문제의 경우 환경 오염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3. 출제 근거

오영수 외, 『고등학교 경제』, 교학사, 2014, 129~132쪽.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2014, 117~120쪽.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2014, 40~41, 133~134쪽.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4, 170쪽.